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2030년까지 기반시설 완비 2050년까지 인구 27만 도시로

비전 변경에 따라 5대 개발 목표도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로 재설정했다.

2050년 사업 완료로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개발 로드맵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당장 2030년까지 적용될 2단계 사업은 새만금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인구 15만명의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맞춰졌다. 주요 기반시설은 신공항과 신항만, 도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내부 간선도로의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새만금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도 그린수소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상수관로 조성 등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방대한 새만금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하고, 먼저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린산업 및 공항 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및 항만경제특구, 관광·신산업 복합단지 등 3개 권역을 추진한다.

이들 경제특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2단계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새만금 개발률을 78%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 87%를 거쳐 2050년에는 100%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의 정주 인구는 27만명, 총 유방인구는 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1단계 기본계획이 완료된 데 따라 이번 안이 마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지역 주민들 국지도 55호선 확장공사 촉구 시위

강천산 진입도로 등 순창~구림 구간 4차선 확장공사 연내 착수 등 요구

순창지역 주민들이 "더이상 못 참겠다"며 "국지도 55호선의 조속한 확장공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순창군 팔덕면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24일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장단은 강천산 진입도로 구간이 포함된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선 확장공사를 올해 내 착수에 줄 것과 적극적인 예산 투입, 안전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지도 55호선 구간에 있는 강천산은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북 대표 관광지"라며 "왕복 2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대다수 차량이 불편해 상습 정체 발생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재춘 팔덕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지난 수년간 가을이면 단풍철 강천산 인파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



순창군 팔덕면 마을이장 25명이 지난 24일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공사'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순창군 제공>

제로 교통 속에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순창군이 적극 나서 해결해 줄 때"라고 주장했다. 정회장은 "가을철이 되면 도로가 마비돼 도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갖가지 주차장으로 변해 사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강천산 인근 팔덕저수지 수변개발 사업과 수체센터 등 관광시설이 추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국지도 55호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군은 오는 6월 예정된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최종 확정고시에 국지도 55호선이 선순위로 반영되면 올해 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 응동면에 이름없는 마스크 천사

익명 독지가 7000장 택배 배달

익명의 독지가가 정읍시 응동면민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7000장을 기부했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응동면사무소에 KF-94 마스크 7000장(350만원 상당)이 택배로 배달됐다.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에 기부자는 "정읍 산성초등학교 졸업생"이라면서 끝까지 알리지 않았다.

면사무소는 기부자가 보낸 마스크를 민면 1600여명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균 응동면장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익명의 독지가가 전달한 마스크.

따뜻한 선정을 베푼 기부자에게 감사하다"며 "마스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나눔공간' 위기 가구 버팀목 자리매김

하루 평균 100여명 이용 1회 5만원 후원 물품 무상 지급

익산시가 도입한 나눔공간이 위기 가구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장 한 나눔공간이 일일 평균 100여명이 방문하며 위기가구의 지원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지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공간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들어서 민관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눔공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후원 물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이다.

직접 공간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선택해 받아갈 수 있다.

이곳은 시민·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후원금을 받아 운영된다. 식품, 생활용품의 제

조업,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금품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되며 법인·소득세 산출시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생계가 곤란해 물품이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이웃과 함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행복나눔마켓·뱅크에 연락하면 된다.

나눔공간은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위기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익산시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복지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춰 위기가구의 경제적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해 나눔공간 운영을 시작했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나눔공간이 지속적으로 나눔 대표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영민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고창읍성 등 6곳 중점경관지구 지정

고창군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등 역사유적과 해안가, 하천변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강화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사와 경관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

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자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고창읍성지구 ▲무장읍성지구 ▲고인돌역사문화지구 ▲선운산공원마을지구 ▲명사십리해안지구 ▲고창천시가지구 등 6곳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고창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